

2026년 중동 지정학 충격과 한국 공급망 위험의 변화

정형곤 세계지역연구1센터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044-414-1127)



차 례

1. 중동 지정학 충격과 한국 공급망 위험의 확산
2. 국가 공급망 위험의 전반적 변화
3. 중동 지정학 충격과 공급선 재편: 제조·운영 리스크의 전이
4. 공급망 위험의 구조적 취약성과 복원력 과제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6년 3월 중동 지정학 위기는 원유·석유화학 기초 원료의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 그리고 공급선 재편을 동반하며 제조업 전반의 조달비용과 운영 부담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충격 이전(2026년 1~2월 평균)과 이후(3~4월 평균)를 비교한 결과, 원유(중질유)의 평균 수입단가는 41.7%, 기타 원유는 39.4% 상승하였으며, 부탄(+43.2%), 나프타(+35.7%), 프로판(+35.1%) 등 주요 에너지·석유화학 원료의 수입단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에너지·석유화학 원료에서는 수입물량 감소와 단위가격 상승이 동시에 관찰되어, 국내 기업들은 이전 보다 높은 비용으로 원자재와 중간재를 조달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단순한 국제유가 상승을 넘어 제조업 공급망 전반의 조달비용과 운영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함.
- ▶ 이번 분석 결과 공급망 위험은 모든 품목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략 중간재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선별적 병목'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2026년 4월 기준 공급망 위험은 일부 전략 중간재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전자부품, 유기·무기화학 소재 등 제조업 핵심 중간재에서 높은 위험 신호가 관찰됨.
 - 이는 일부 전략 품목의 병목현상이 제조업 전반의 조달 부담과 생산 차질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 최근 공급망 위험은 단순한 수입 감소가 아니라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충격'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
 - 2026년 4월 기준 가격 급등 신호는 2,792건, 수입물량 감소 신호는 3,11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가격·물량 복합충격 품목은 1,588건, 가격·물량 동시 고위험 품목은 731건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최근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교역 변동을 넘어 기업의 실제 생산·조달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줌.

- ▶ 이번 분석은 최근 공급망 위험의 핵심이 단기적인 공급 부족보다 공급 집중과 공급선 전환 제약 등 공급 구조의 특성에 있음을 보여줌.
 - 공급선 다변화 필요 품목(1,542개)은 즉시조달 필요 품목(449개)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공급국 수가 적고 특정국 의존성이 높은 품목일수록 위험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 이는 현재의 공급망 위험이 단기적인 구매 차질보다 공급선 집중과 대체조달 제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
- ▶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공급선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서는 기존 핵심 공급선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기업들은 외부 충격 상황에서 신규 공급선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보다, 기존에 품질과 납기가 검증된 공급선을 유지·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실제 분석 결과 공급국 수가 감소한 품목은 3,355개, 최대 공급국 의존도가 상승한 품목은 4,411개로 나타나, 공급망 재편이 반드시 공급망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향후 공급망 정책의 초점이 명목상의 공급국 수 확대보다 실제 생산 공정에 활용 가능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공급선 전환 역량 강화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향후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급망 위험이 제조업 운영 부담과 생산원가 상승을 통해 물가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에너지 및 제조업 핵심 중간재의 가격 상승은 기업의 조달비용과 생산원가를 높여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비용은 최종재 가격으로 전가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일부 전략 중간재에 집중되는 '선별적 병목'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과 수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최근의 공급망 문제는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수출 성과, 물가 안정 및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경제안보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이번 중동 위기는 새로운 위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시화한 계기임.
 - 공급망 위험은 특정 사건 자체보다 특정국 의존과 공급선 다변화의 한계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일한 HS6 품목군 내에서도 HS10 세부 품목별 공급구조와 위험 양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 기존 총량 중심 분석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공급망 위험과 조달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실제로 원유(HS270900)의 경우 HS6 기준으로는 중동 의존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지만, HS10 수준으로 세분화하면 일부 원유 품목에서는 미국이 안정적 공급축 역할을 유지하고, 호주 등 비중동 공급국의 역할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기 위기 대응보다 핵심 전략 중간재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밀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1. 중동 지정학 충격과 한국 공급망 위험의 확산

가. 중동 충격 이후 한국 공급망 위험의 확산

■ 외생적 지정학 위기 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중동 지정학 위기는 국제 원유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자재 수입 경로와 연계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공급망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단기 지정학 충격이 드러낸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 국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 결과, 2026년 3~4월 중동 지정학 충격은 일부 전략 중간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공급선 전환, 특정국 의존 심화 등 복합적인 공급망 위험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미·이란 간 휴전 또는 종전 합의 논의가 진전되면서 단기적인 공급 차질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사례는 위기 발생 시 공급선 재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비용 및 운영 부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이번 중동 위기는 새로운 구조적 위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과 공급선 전환의 한계를 가시화한 계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거시적 충격의 미시적 조달 부담으로의 전이

-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넘어 개별 기업의 조달비용과 생산운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파급되고 있음.
- 이는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원가 상승과 원자재 확보 부담으로 연결되면서, 공급망 위험이 제조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음을 의미함.

나.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충격 취약 구조

■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계 구조의 내재적 취약성

- 한국 제조업은 고도화된 대외 개방형 생산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깊이 편입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교란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님.
- 특히 주요 제조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외부 충격이 생산과 조달 시스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공정 간 연계성이 높은 생산체계와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조달(Just-In-Time) 운영 방식
- 핵심 전략 중간재의 특정 공급국 또는 소수 공급선에 대한 높은 의존 구조
- 공급선 변경 시 품질 인증과 공정 적합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높은 전환비용

■ 핵심 리스크는 낮은 공급망 복원력

- 현재 한국 공급망이 직면한 핵심 위험은 단순한 특정국 의존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외생 충격 발생 시 이를 흡수하고 대체 공급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급망 복원력(resilience)이 충분치 않다는 점임.
- 특히 일부 전략 중간재는 공급선 전환 자체가 생산수율과 공정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조달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급망 위험은 단순한 일시적 교란을 넘어 장기적인 조달 부담과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국가 공급망 위험의 전반적 변화

■ 조기경보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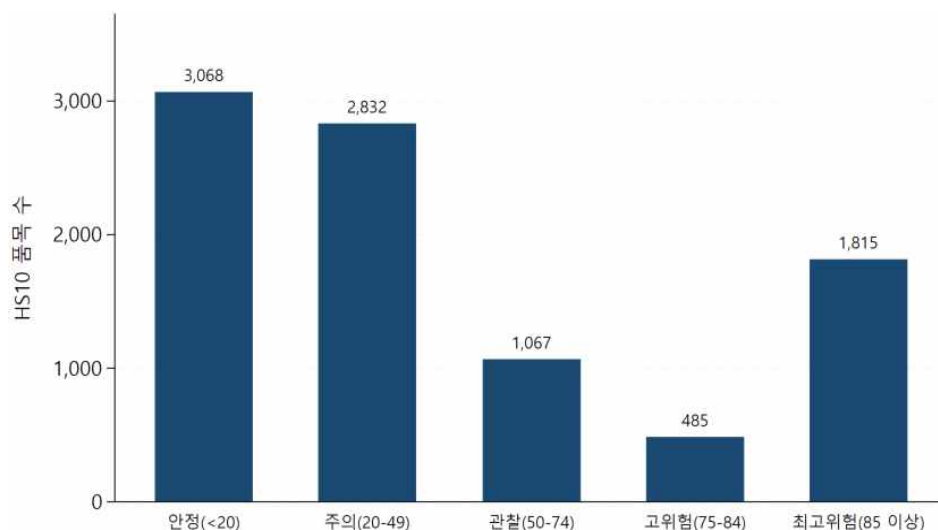
- 2026년 4월 기준 국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 결과, 공급망 위험은 모든 품목에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 일부 전략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고위험 구간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임.
- 전체 9,267개 HS10 품목 가운데 안정·주의 단계(위험등급 50 미만) 품목은 5,900개로 전체의 6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관찰 단계(50~74) 품목은 1,067개(11.5%), 고위험 단계(75~84) 품목은 485개(5.2%), 최고위험 단계(85 이상) 품목은 1,815개(19.6%)로 분석됨.

■ 위험 단계별 품목 분포의 특징과 시사점

- 위험 단계별 분포에서 주목할 점은 최고위험 단계(위험등급 85 이상) 품목이 1,815개로, 고위험 단계(위험등급 75~84) 품목 485개의 약 3.7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임.
- 이는 공급망 위험이 모든 품목에 균등하게 분산되기보다 일부 전략 중간재와 핵심 공급망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을 시사함.
- 반면 안정·주의 단계 품목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한국 공급망이 특정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위험이 집중되는 '선별적 병목(selective bottleneck)' 구조에 가까움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공급망 정책이 모든 품목을 동일하게 관리하기보다 위험이 집중되는 전략 중간재와 핵심 공급망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공급망 위험 단계별 분포(2026년 4월)

(단위: 개)



주: 공급망 위험 단계는 국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수입 감소율, 공급망 안정성지수, 공급 중단 여부 및 위험 심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류하였음.

안정·주의: 위험등급 50 미만

관찰: 위험등급 50~74

고위험: 위험등급 75~84

최고위험: 위험등급 85 이상

※ 위험 단계가 상향될수록 공급망 충격의 지속 가능성과 조달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 중동 지정학 충격과 공급선 재편: 제조·운영 리스크의 전이

가. 중동 지정학 충격의 영향: 에너지·석유화학 원료의 가격 및 조달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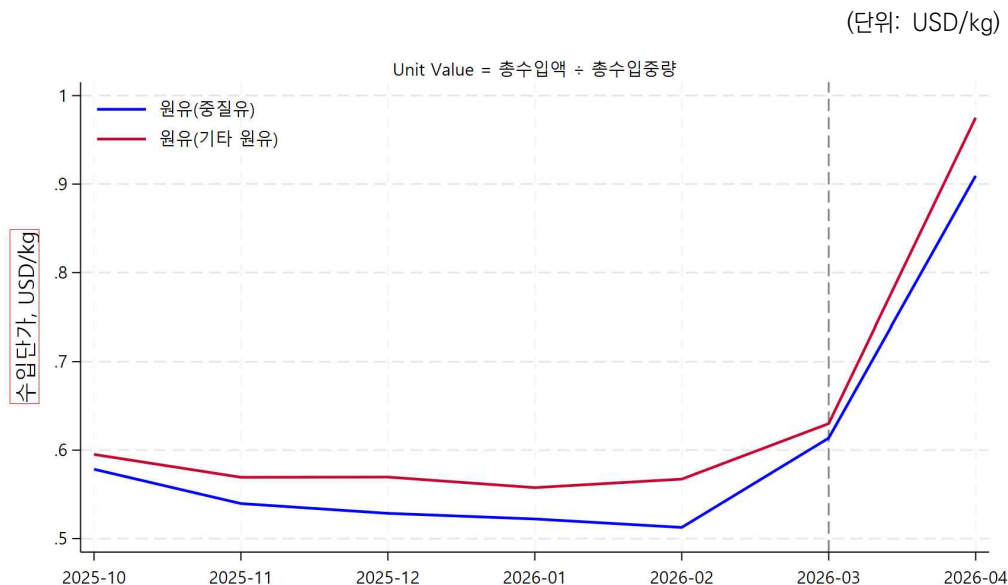
■ 중동발 직접 충격의 대상 및 구조적 취약성

- 분석 결과 중동 지정학 충격(미·이란 군사 충돌 및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나프타 등 에너지·석유화학 원료 품목군에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제조업은 원유와 석유화학 기초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은 발전·수송뿐만 아니라 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 반도체 및 이차전지 소재 생산의 핵심 투입재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용 및 조달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함.

■ 원유 및 LPG(프로판·부탄) 계열의 단위가격 상승과 조달 부담 확대 [그림 2, 그림 3 연계]

-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원유 계열의 월별 수입단가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본격화된 2026년 3월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냄.
- 충격 이전(2026년 1~2월)과 충격 이후(2026년 3~4월)를 비교하면 원유(중질유)의 단위가격은 41.7% 상승하였으며, 기타 원유 역시 3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수입증량은 각각 14.5%, 2.7% 감소하여 공급 차질 속에서 더 적은 물량을 더 높은 가격으로 조달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중동발 공급 차질이 단순히 국제유가 상승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 조달 구조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2. 원유 계열 월별 수입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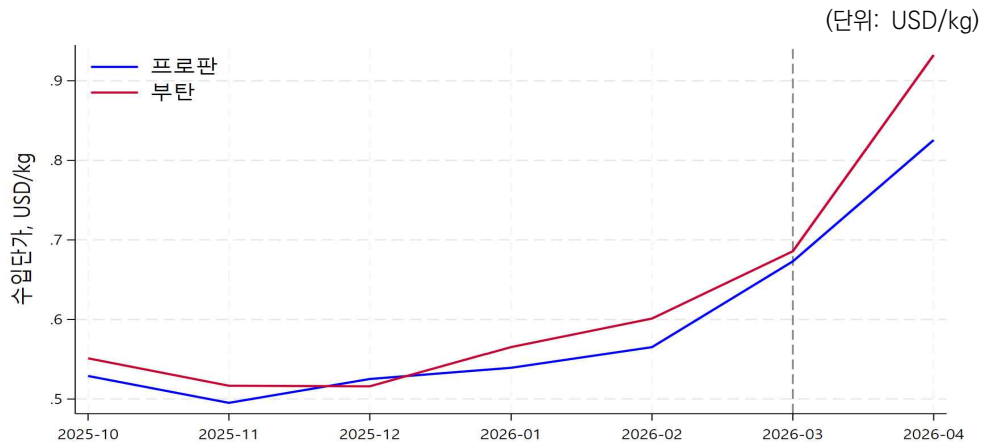


주: 품목 구분은 관세청 HS10 세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단위가격은 각 월의 총수입액을 총수입증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PG 계열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남. 프로판의 단위가격은 충격 이전 대비 35.1% 상승하였으며, 부탄은 43.2% 상승하여 분석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특히 프로판과 부탄은 석유화학 공정의 기초 원료이자 산업용 연료로 폭넓게 활용되는 전략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기초 원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더욱이 프로판의 수입증량은 24.5%, 부탄은 6.9% 감소하여, 가격 상승과 물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의 특성이 뚜렷하게 관찰됨.

그림 3. 프로판·부탄 월별 수입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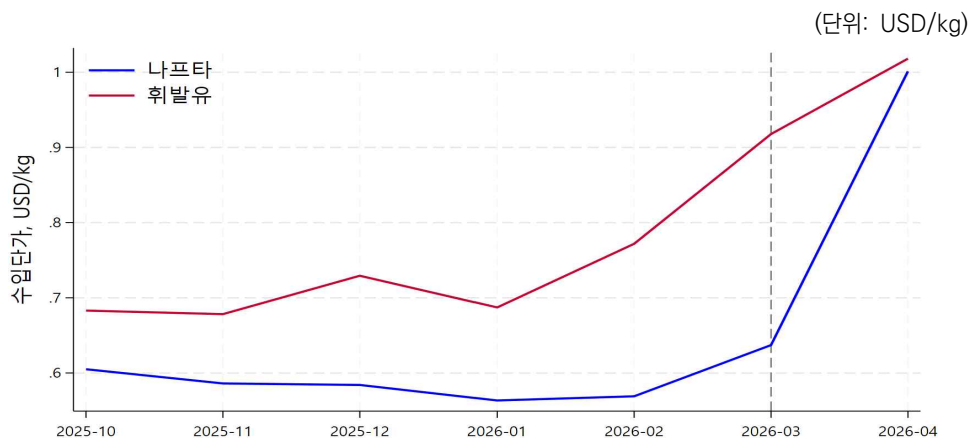
주: 품목 구분은 관세청 HS10 세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단위가격은 각 월의 총수입액을 총수입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나프타 및 정유제품으로의 위험 전이

- [그림 4]에서 보듯이 원유시장의 충격은 정유제품을 넘어 제조업 공급망의 출발점에 위치한 나프타 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임.
- 나프타는 충격 이후 수입중량이 29.9% 감소하였음에도 단위가격은 35.7% 상승하였으며, 휘발유 역시 수입중량이 6.8% 감소하는 가운데 단위가격은 2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제 원유시장의 불안정성이 정유제품을 거쳐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전이되면서 국내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 압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생산의 핵심 원료로서 플라스틱, 전자재료, 반도체 및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림 4. 나프타 및 휘발유 월별 수입단가 추이



주: 품목 구분은 관세청 HS10 세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단위가격은 각 월의 총수입액을 총수입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단위가격 상승은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결합된 복합 충격의 결과

- [표 1]은 주요 에너지·석유화학 원료의 수입액, 수입증량 및 단위가격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임.
- 분석 결과, 6개 전략 품목 모두에서 수입증량은 감소한 반면 단위가격은 상승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됨.
- 부탄(+43.2%), 원유(중질유)(+41.7%), 기타 원유(+39.4%), 나프타(+35.7%), 프로판(+35.1%), 휘발유(+27.6%) 순으로 단위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액 감소폭보다 수입증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평균 조달단가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나프타와 프로판은 수입증량이 각각 29.9%, 24.5% 감소하여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차원의 조달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중동 지정학 충격의 본질이 단순한 국제유가 상승이 아니라,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여 국내 기업의 조달비용과 운영 부담을 확대시키는 복합 충격임을 의미함.

표 1. 주요 에너지·석유화학 원료의 수입액·수입증량·단위가격 변화(2026년 1~2월 대비 3~4월)

HS10	품목	수입액 변화	수입증량 변화	단위가격 변화
2711130000	부탄	+33.3%	-6.9%	+43.2%
2709001010	원유(중질유)	+21.1%	-14.5%	+41.7%
2709001090	원유(기타 원유)	+35.6%	-2.7%	+39.4%
2710124000	나프타	-4.8%	-29.9%	+35.7%
2711120000	프로판	+2.0%	-24.5%	+35.1%
2710121000	휘발유	+18.9%	-6.8%	+27.6%

주: 충격 이전은 2026년 1~2월, 충격 이후는 2026년 3~4월 기준이며, 수입액 변화·수입증량 변화·단위가격 변화는 충격 이전 대비 충격 이후의 증감률을 의미함. 단위가격은 각 기간의 총수입액을 총수입증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품목 구분은 관세청 HS10 세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나. 공급선 재편과 대체조달 확대: 세부 품목별 조달 구조 변화와 비용 상승

■ 중동 의존 축소와 대체 공급선 활용

- 중동 지정학 충격은 에너지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을 일괄적으로 위축시키기보다는 기존 공급국의 물량 일부를 대체 공급선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남.
- 국내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급선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호주·UAE·인도·알제리 등 대체 공급선을 병행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급선 재편은 HS10 세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일부 품목에서는 기존 공급선 유지와 신규 대체 공급선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보임.
- 다만 이러한 조정은 단순한 공급선 다변화가 아니라 더 높은 국제가격, 운송비, 신규 조달선 확보 비용을 수반하는 비용 상승형 재편의 성격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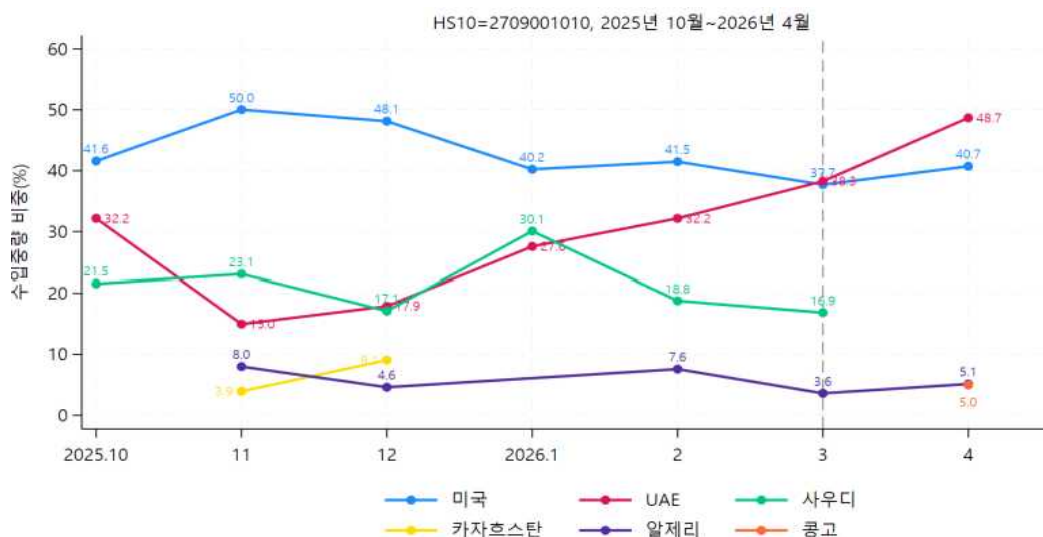
- [그림 5]~[그림 7]은 관세청 HS10 세분류 기준 주요 원유·나프타 품목의 공급국별 월별 수입증량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이는 수입액 기준 점유율이 아니라 가격효과를 제거한 실제 조달물량 기준 지표로, 중동 충격 이후 세부 품목별 공급선 재편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줌.
- 다만 HS6 단위의 전체 원유(HS270900) 기준 국가별 수입 구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일 HS6 범주 내에서도 세부 품목별로 조달 구조와 공급국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원유(중질유): 미국의 안정적 비중 유지와 UAE 비중의 급확대

- [그림 5]는 원유(중질유, HS10 2709001010)의 주요 공급국별 월별 수입증량 비중 변화를 보여줌.
- 미국은 2025년 10월 41.6%에서 2026년 4월 40.7%로, 분석 기간 내내 약 40~50% 수준의 높은 비중을 유지
- UAE의 비중은 2025년 11월 14.9%에서 2026년 4월 48.7%로 크게 확대됨. 특히 2026년 3월 이후 미국과 UAE의 비중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며, UAE가 단기 대체 조달의 핵심 공급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1월 일시적으로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빠르게 축소되어 3월에는 16.9%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4월에는 그래프상 주요 공급국 비중에서 제외되는 모습을 보임. 다만 이는 본 분석 대상인 중질유 품목에 한정된 결과로, 전체 원유(HS270900) 수입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변화는 중질유 조달에서 기존 공급선이 단순히 축소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안정적인 기반 공급원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UAE가 충격 대응형 대체 공급원으로 기능하면서 조달 구조가 재편되었음을 보여줌.
- 다만 대체 조달 확대는 비용 측면의 부담을 동반함. 앞서 단위가격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요 에너지 품목의 단위가격이 충격 이후 상승하였기 때문에, 중질유 공급선 재편은 공급 안정성 확보와 조달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5. 원유(중질유) 주요 공급국 월별 수입증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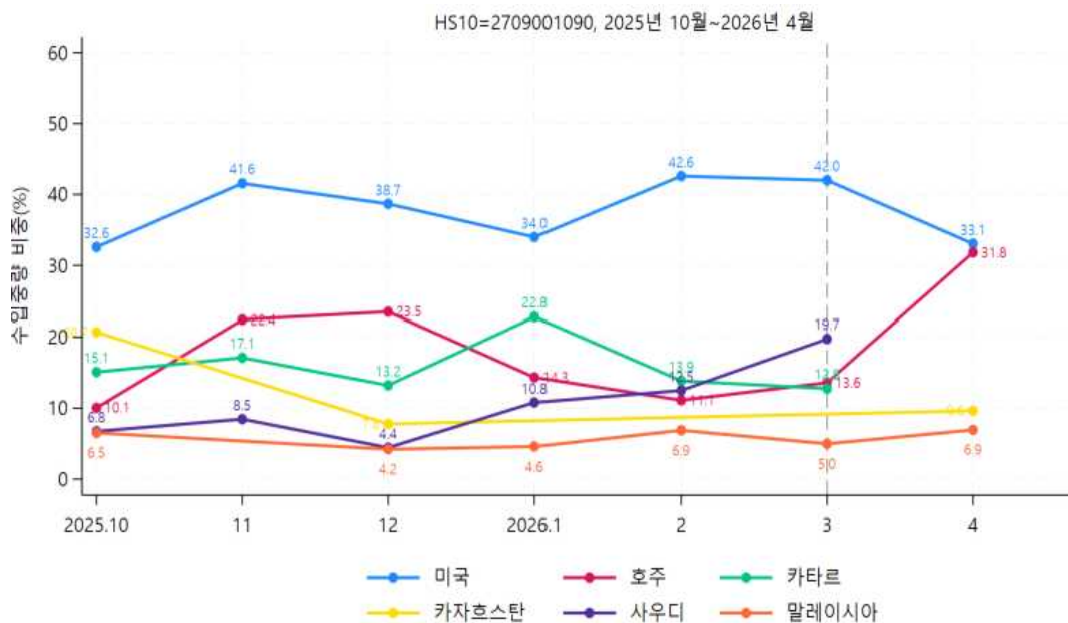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6]은 기타 원유(HS10 2709001090)의 주요 공급국별 월별 수입증량 비중 변화를 보여줌.

- 분석 결과, 중동 지정학 충격 이후 기존 중동 중심의 조달 구조가 미국을 안정적 공급축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호주를 중심으로 대체 공급선이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미국은 분석 기간에 약 33~42% 수준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며 최대 공급국 지위를 지켰고, 호주는 2025년 10월 10.1%에서 2026년 4월 31.8%로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반면 카타르는 2026년 1월을 정점으로 비중이 감소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3월까지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4월에는 양국 모두 주요 공급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 충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카타르산 기타 원유 수입증량은 63.4% 감소한 반면, 호주산 수입증량은 6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단위가격 분석과 종합하면 미국산 원유의 수입액도 증가하여, 대체 공급선 확대와 함께 조달비용 부담도 커진 것으로 평가됨.

그림 6. 원유(기타 원유) 주요 공급국 월별 수입증량 비중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나프타: 가장 뚜렷한 공급선 재편과 석유화학 원료 조달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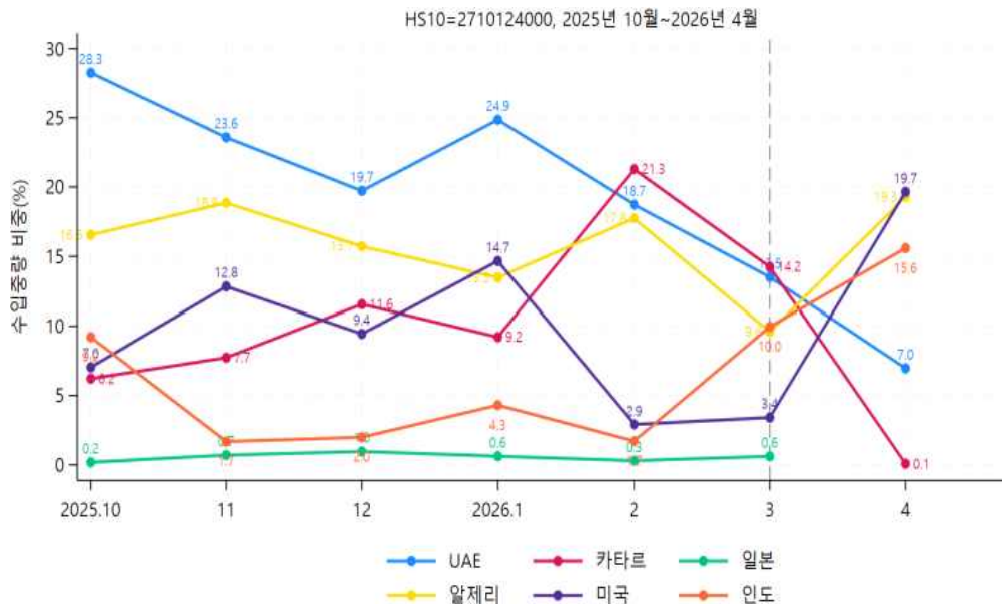
- [그림 7]은 나프타(HS10 2710124000)의 주요 공급국별 월별 수입증량 비중 변화를 보여줌.
- 나프타는 분석 대상 품목 가운데 공급선 재편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품목으로 UAE의 비중은 2025년 10월 28.3%에서 2026년 4월 7.0%로 크게 하락하였고, 카타르 역시 2026년 4월에는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급 비중이 사실상 소멸함.
- 반면 미국은 2026년 2월 2.9%에서 4월 19.7%로, 알제리는 17.8%에서 19.3%로, 인도는 2026년 2월

1.7%에서 4월 15.6%로 비중이 확대되어 대체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동발 공급 불안으로 단순히 수입이 감소한 것만이 아니라, 기존 걸프권 중심의 조달 구조가 미국·알제리·인도 등 비중동 공급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특히 나프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 원료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급선 재편은 원료 조달 안정성뿐 아니라 생산비용과 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상의 분석 결과는 중동 지정학 충격이 단순한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세부 품목별로 상이한 공급선 재편과 대체조달 과정을 유발하였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공급망 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HS6 수준의 총량 분석과 함께 HS10 수준의 세부 품목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7. 나프타 주요 공급국 월별 수입중량 비중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다. 공급망 충격의 유형별 위험 구조와 제조·운영 리스크의 확대

■ 가격 급등과 물량 감소의 동시 발생(복합 충격)

- 2026년 4월 기준 공급망 충격은 단일 차원의 가격 또는 물량 변동에 그치지 않고, 다수 품목에서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가 동시에 관찰되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남.
 - 분석 결과 가격 급등 신호는 2,792건, 수입물량 감소 신호는 3,11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두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품목도 1,588건에 달함.
- 특히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가 동시에 관찰된 품목 중 가격과 물량 모두에서 고위험 신호를 보이는 품목은 731건으로 나타나, 일부 전략 품목에서는 조달 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중동발 충격에서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함께 감소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관찰됨. 이는 일부 품목에서 공급선 전환의 제약이나 기존 공급망의 경직성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격·물량 복합신호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존 공급선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운영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조·운영 리스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표 2. 2026년 4월 기준 공급망 충격 유형 총괄

충격 유형	건수
가격 급등 충격	2,792건
물량 감소 충격	3,117건
가격+물량 동시충격	1,588건
가격+물량 동시 고위험	731건

주: 가격 급등 신호와 수입물량 감소 신호는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된 결과이며, 동일 품목이 두 유형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음. 수입물량 감소는 국내 수요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공급망 차원의 복합 위험 신호로 해석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산업별 충격 유형과 제조·운영 부담의 확산

- 산업별로는 에너지 부문에서 가격 급등 비중(48.2%)과 가격·물량 동시충격 비중(31.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위가격 중간값도 10.2% 상승하여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복합충격 양상을 보임.
- 이러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핵심 중간재 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으로 분석됨.
 - 기계류·장비(+3.0%), 전기·전자부품(+4.8%), 유기화학품(+3.9%) 등에서도 충격 이전(2026년 1~2월) 대비 단위가격 상승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특히 기계류 및 장비 분야는 충격 이전 대비 수입단가가 20% 이상 상승한 사례의 비중이 32.1%로 높게 나타나,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현장의 조달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최근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수입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비용 증가와 공급선 조정 부담 등 제조업 운영 단계의 구조적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 산업별 공급망 충격 유형 및 비중

산업	품목 수	가격 급등 비중	물량 감소 비중	가격+물량 동시충격 비중
광물성 연료·에너지	112	48.2%	44.6%	31.3%
무기화학품	309	31.1%	41.7%	21.0%
유기화학품	637	38.0%	33.4%	19.9%
플라스틱·수지	225	29.3%	26.7%	16.4%
기계류·장비	1,006	32.1%	33.8%	16.9%
전기기기·전자부품	703	30.6%	31.6%	17.1%
정밀기기	339	30.1%	34.5%	19.2%

자료: 저자 작성.

■ 산업별 공급망 구조와 제조업 핵심 중간재의 구조적 취약성

- 가격·물량 복합충격이 제조업 운영 부담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무기·유기화학품과 기계·전자부품 등 핵심 중간재 부문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4]는 산업별 평균 위험도, 최대 공급국 의존도(최대 공급국 비중), 평균 공급국 수 및 전략적 의존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무기화학품과 유기화학품이 가장 높은 구조적 위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계류·장비와 전기·전자부품은 공급국 수가 비교적 많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도를 유지하고 있어, 공급국 수의 단순한 확대만으로는 공급망 위험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화학소재와 제조업 핵심 중간재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조달 및 생산 시스템에 구조적인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 산업별 공급망 위험 및 구조적 취약성 비교(2026년 4월)

산업	품목 수	평균 위험도	평균 최대 공급국 비중	평균 공급국 수	전략적 의존성
광물성 연료·에너지	553	31.3	57.3%	5.26	24.2
무기화학품	1,669	36.2	68.4%	3.89	31.1
유기화학품	3,836	32.1	67.6%	4.24	27.9
플라스틱·고무	3,891	18.2	55.9%	6.87	13.1
기계류·장비	8,196	27.6	55.4%	6.79	20.7
전기기기·전자부품	9,042	21.8	56.3%	6.83	16.7
정밀기기	5,121	24.0	48.9%	7.71	16.0

주: 평균 최대 공급국 비중은 해당 산업 품목별 최대 공급국 점유율의 평균이며, 전략적 의존성은 EWS 기반 구조적 의존성 지표의 평균값임. '기타' 산업은 산업 간 비교의 명확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공급망 위험의 지속성과 구조적 특성

- 가격·물량 복합충격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망 충격 유형별 구조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함.
- 분석 결과, 위험이 장기간 지속되는 품목일수록 공급국 수는 적고, 최대 공급국 의존도와 공급국 지정학적 위험도를 결합한 전략적 의존성 지표는 높은 경향이 나타남.
- 일반 품목의 평균 공급국 수는 6.4개인 반면 3개월 이상 위험이 지속된 품목은 평균 2.8개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전략적 의존성 지표도 일반 품목(11.2)에 비해 위험 지속 품목(74.9)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 [표 5]는 단기적인 공급충격은 다양한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위험이 장기간 지속되는 품목은 공급선 전환이 쉽지 않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략 중간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최근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가격 변동이나 일시적 조달 차질을 넘어, 공급선 집중과 대체조달 제약이 결합된 공급 구조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공급망 복원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5. 공급망 충격 유형별 구조적 특성 비교(2026년 4월)

구분	평균 위험도	평균 공급국 수	전략적 의존성
일반 품목	11.7	6.44	11.2
충격 품목	55.4	5.98	36.0
고위험 품목	92.8	3.97	68.3
위험 지속 품목	86.0	2.77	74.9

주: 전략적 의존성은 최대 공급국 의존도와 공급국 지정학적 위험도를 결합한 EWS 복합지표임.

자료: 저자 작성.

4. 공급망 위험의 구조적 취약성과 복원력 과제

가. 공급국 수와 공급망 복원력의 한계

■ 공급국 수와 구조 위험 발생의 상관관계

- 3장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근 공급망 위험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일부 전략 중간재를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임.
 - 이러한 위험의 지속성은 공급망이 외부 충격 이후 얼마나 빠르게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가를 의미하는 공급망 복원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공급국 수는 대체조달 가능성과 공급망 복원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공급국 수가 적을수록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져 충격 이후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표 6]에서 확인되듯이 공급국 수가 2개 이하인 품목의 장기 구조 위험 발생률은 6.5%로, 공급국 수가 10개 이상인 품목(0.3%)에 비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급국 수가 5개 미만인 구간에서 구조 위험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비선형적 특성이 관찰되어, 일정 수준 이하로 공급망이 집중될 경우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을 시사함.
- 이는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일시적 충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 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줌.

표 6. 공급국 수와 장기 구조 위험 발생률

공급국 수	장기 구조 위험 발생률	시사점
2개 이하	6.5%	10개 이상 품목 대비 위험 발생률이 약 22배 높은 수준
3~4개	3.8%	잠재적 구조 위험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선제적 관리 필요
5~9개	2.2%	중간 수준의 위험도 유지
10개 이상	0.3%	대체조달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자료: 저자 작성.

■ 운영 신호는 단기 충격보다 회복 지연을 보여줌

-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 결과, 최근 공급망 위험은 단기적인 충격 발생보다 충격 이후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2026년 4월 기준 충격 신호 품목은 3,311개, 위험도 급상승 품목은 2,897개로 나타나 광범위한 품목에서 공급망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신규 고위험 진입(392개)과 고위험 유지(267개)가 동시에 관찰되고, 이 가운데 23개 품목은 3개월 이상 고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전략 중간재에서는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음.

■ [표 7]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급선 다변화 필요 품목(1,542개)이 즉시 조달 필요 품목(449개)을 크게 상회한다는 사실임.

- 이는 현재 공급망 위험의 상당 부분이 단기적인 재고 부족보다 특정 공급선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대체조달의 어려움 등 공급 구조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 즉, 단순한 긴급 조달만으로는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선 다변화와 공급망 복원력 제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신속 점검 대상 품목이 2,583개에 달하는 것은 공급 집중 심화와 조달비용 증가 등의 운영 부담이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7.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기반 운영신호 및 대응 우선순위 현황(2026년 4월 기준)

구분 (운영 신호 구조)	품목 수	구분 (대응 단계)	품목 수	의미
충격 신호	3,311	즉각 대응	178	공급 차질 또는 가격 급등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품목
위험도 급상승 품목	2,897	신속 점검	2,583	단기간 내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집중 점검이 필요한 품목
신규 고위험 진입	392	관찰	1,692	최근 위험 수준이 상승한 품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품목
고위험 유지	267	공급선 다변화 필요	1,542	특정 국가 또는 공급업체 의존도가 높아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품목
고위험 지속	23	즉시조달	449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품목

주: '고위험 유지'는 전월에도 고위험 상태였으며 당월에도 고위험 상태가 이어진 품목을 의미하고, '고위험 지속'은 이러한 고위험 상태가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나. 공급망 재편의 역설: 분산과 재집중의 동시 진행

■ 공급망 재편과 실제 기업 조달 전략의 괴리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분산하는 '다변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기업의 조달 전략은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공급망 충격 이후에는 신규 공급선 확보보다 기존에 품질과 납기가 검증된 공급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의존도를 확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이는 신규 공급선의 경우 품질 인증, 공정 적합성 검증, 생산수율 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충격 상황에서는 검증된 공급선을 활용하는 것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공급국 감소와 공급 집중 심화의 복합 구조

- 실제 분석 결과, 공급국 수가 감소한 품목은 3,355개, 최대 공급국 의존도가 상승한 품목은 4,411개로 나타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공급 구조의 집중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특정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급선 집중 품목은 4,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구조적 위험이 나타난 품목(2,795개)보다 훨씬 많은 수준임.
 - 이는 상당수 품목이 아직 위험 신호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특정 공급국에 대한 높은 의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급망 재편이 반드시 공급선 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 [표 8]의 결과는 공급망 재편이 단순한 공급선 분산 과정이 아니라, 일부 생산거점의 다변화와 핵심 공급선에 대한 재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줌.

- 특히 공급국 수 감소와 최대 공급국 의존도 상승이 동시에 관찰되는 품목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외부 충격 이후에도 기업들이 신규 공급선 확보보다 검증된 기존 공급선에 대한 의존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공급망 재편이 반드시 공급망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 전략 중간재에서는 공급 구조의 경직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증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음.

표 8. 공급망 구조 변화와 조달 경직성 현황(2026년 4월 기준)

구분	품목 수	분석적 의미
특정 공급선 집중 품목	4,700개	특정 국가 또는 소수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잠재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
최대 공급국 의존도 상승 품목	4,411개	충격 이후 1위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확대되어 공급망 재집중 현상이 나타난 품목
공급국 수 감소 품목	3,355개	공급처 축소가 발생하여 대체조달 가능성이 낮아진 품목
구조적 위험 품목	2,795개	공급 집중과 위험 신호가 결합되어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품목

출처: 저자 작성

주: 특정 공급선 집중 품목은 특정 국가 또는 소수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의미하며, 구조적 위험 품목은 공급집중과 위험 신호가 결합되어 외부 충격 이후에도 위험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 품목을 의미함.

■ [표 9]는 중동발 공급망 충격 이후 글로벌 조달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최대 공급국 의존도가 크게 상승한 사례를 제시한 것임.

- 이러한 사례는 공급망 재편이 반드시 공급선 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에서는 특정 공급선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공급망 위험을 평가할 때 단순한 공급국 수뿐 아니라 실제 조달 구조와 공급 집중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9. 중동발 공급망 충격 이후 최대 공급국 의존도 상승 사례(2026년)

품목코드	산업	중동 충격 이전	중동 충격 이후	변화폭
2915293000	유기화학품	47.4%	98.7%	+51.3%p
2836991010	무기화학품	39.4%	89.0%	+49.5%p

자료: 저자 작성.

■ 이상의 분석 결과는 최근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단기 충격이 아니라 공급망 복원력 및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 공급국 수가 적고 공급 집중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신호 역시 단기적인 충격 발생보다 위험의 지속과 누적 현상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줌.
- 또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공급선 분산과 함께 기존 공급선에 대한 재집중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최대 공급국 의존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사례도 확인됨.
- 결국 최근 공급망 위험은 단순한 물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복원력과 실제 조달 구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공급망 위험의 정책적 함의와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 분석 결과

■ 공급망 위험은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니라 ‘복합 충격’으로 진화

- 본 연구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을 통해 2026년 중동 지정학 충격이 우리나라 제조업 공급망에 미친 영향을 HS10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최근 공급망 위험은 단순한 수입 감소가 아니라 가격 상승과 물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충격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실제 조달 부담과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중동발 에너지·석유화학 원료 공급 차질의 충격은 화학소재와 전략 중간재를 거쳐 제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공급망 위험이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운영과 조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공급망 재편은 ‘다변화’와 ‘재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

- 일반적으로 공급망 재편은 공급선 분산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공급국 수 감소와 최대 공급국 의존도 상승이 동시에 관찰되었음.
- 이는 외부 충격 이후 기업들이 단기간 내 공급선을 충분히 다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공급선을 중심으로 조달 구조를 재조정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함.
 - 즉, 최근 공급망 재편은 공급선 분산과 핵심 공급선에 대한 재집중이 병행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국 수 증가만으로는 공급망 위험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공급망 위험의 본질은 구조적 취약성과 공급망 복원력의 문제

- 공급국 수가 적고 전략적 의존성이 높은 품목일수록 위험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공급선 다변화 필요 품목이 즉시조달 필요 품목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부 전략 중간재에서는 위험 신호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양상이 관찰되어, 최근 공급망 위험은 일시적인 충격보다 공급 구조의 경직성, 공급선 집중, 대체조달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 결국 공급망 위험의 핵심은 충격 발생 자체보다 외부 충격 이후 공급망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공급망 복원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나. 정책적 시사점

■ 공급망 정책의 목표를 ‘공급국 수 확대’에서 ‘공급망 복원력 강화’로 전환

- 공급망 정책의 성과는 공급국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가 아니라, 외부 충격 발생 시 생산과 조달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되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공급망 정책은 명목상의 공급선 다변화보다 공급망 복원력과 실제 공급선 전환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체 공급선’ 확보가 핵심

- 신규 공급선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생산 공정에 즉시 투입할 수 없다면 공급망 위험은 완화되지 않음.
- 특히 반도체, 첨단화학소재, 전기·전자부품 등 전략 중간재는 품질 인증과 공정 적합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공급선 다변화보다 실제 생산 공정에 활용 가능한 대체 공급선을 사전에 확보·검증하는 체계 구축에 맞출 필요가 있음.

■ 전략 중간재 중심의 선별적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 공급망 위험은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위험은 일부 전략 중간재와 구조적 취약 품목에 집중되는 특성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공급망 정책도 모든 품목을 동일하게 관리하기보다 구조적 취약성이 높고 제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 중간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순한 공급선 다변화보다 공급망 복원력과 실질적인 대체조달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임.

■ 또한 이번 분석 결과는 동일한 HS6 품목군 내에서도 HS10 세부 품목별로 공급 구조와 위험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원유(HS270900)의 경우 HS6 기준으로는 중동 의존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지만, HS10 수준으로 세분화하면 일부 원유 품목에서는 미국과 호주 등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공급망 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HS10 기반의 세부 품목 분석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HS14 수준까지 분석 단위를 확대하여 실제 기업의 생산 공정과 연계된 정밀 공급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KIEP